

“오늘날 우리에게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재철
전북대 스페인어과 교수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날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라든지, 절대적인 진리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 가치나 의미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객관적이라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시대에서 권위로 인정되었던 것은 더 이상 권위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권위라는 단어조차 쓰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권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리라는 말보다는 느낌이나 감(感)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봐”가 아니라 “무엇인가 찢히게 느껴봐”가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어른들과 기성 제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요 하나의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나를 즐겁게만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음악, 컴퓨터 게임 등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이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매체요 이들에게 시대정신을 심어주는 전도사입니다. 별 생각 없이 MP3 음악을 듣고 다니며 자신의 마음을 시대정신에 개방하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그 씨앗이 마음 밭에 자라도록 놓아둡니다.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너나 돌아봐/ 멋대로 뜻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할꺼야/ 그래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왜 받아드리질 못해/ 내가 너를 그냥 내 버려 두듯이 그 무엇도 강요할 순 없어/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너는 말하지/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따지고 이게 세상이라고/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꼴들이 우습게 보일 뿐야/ 가르치려 드는 너의 두 눈이 나를 더욱 역하게 하잖아/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내게 더 바라지 말아 지금도 지쳐하고 있는 내 마지막 기대마저도 죽어가잖아/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재촉하지만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착각하며 살지마 -Big Mama(빅마마)의 노래 ‘거부’ -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정신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땅의 것으로도 모자라 하늘의 모든 권위(All authority)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권위의 절대성은 이 시대의 상대성과는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make disciples of all nations)는 강력한 명령은 ‘그 무엇도 강요할 순 없어’ 라는 이 시대의 불간섭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

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정신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서있는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도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비단 오늘날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도전입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즐거움은 좋은 것이니 자신을 맡겨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늘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돈은 힘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 넘치도록 벌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부추기는 소리가 있는 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고 더 살면 손해볼 것 같은 배우자와는 깨끗하게 갈라서라는 시대정신과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며 끝까지 배우자를 섬겨야 한다는 성경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해 보면 종교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화를 좋아하며 동일한 돈을 사랑하며 동일하게 이혼을 감행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탄할 만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무리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힘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택하여야 할 선택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인상은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힘이 들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땀을 흘려야 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으로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공동번역)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고(baptizing them), 복종하도록 가르쳐서(teaching them to obey)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한 모든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훈련(discipline)과 제자(disciple)는 동일한 어원을 가집니다. 영영 사전에는 ‘훈련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이나 행동 규범을 복종하도록 만드는 연습(practice of making people obey rules or standards of behaviour)’ 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해야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기독교인은 세상과 벗되어서 적당히 사는데 너만 유독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육체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데 정말 출세와 성공을 포기할 자신이 있느냐고 위협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임수는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속이는 자가 즐겨 사용해온 전략

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인생에 치욕스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윗도 욕정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남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움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데 선수인 이 시대정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들 가운데 선택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고르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며 살 때 비록 이리와 같은 시대정신이 판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비둘기처럼 순전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이 아래로부터 오는 것인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지혜 가운데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며 무엇이 나약한 행동인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이 시대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 훈련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필요합니다.